

# 이달 '밸류업 지수' 발표 앞두고 10대 그룹 동참 '활발'

LG·포스코그룹·현대차그룹 참여  
상장사 참여율도 늘어나는 모습  
발표지수 구성 종목 아직 미확정  
참여율 1%대... 공시 반영 미지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인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LG, 포스코 그룹, 현대차 그룹 등 대기업이 밸류업에 동참했다. 10대 그룹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만큼 상장사들의 밸류업 참여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포스코그룹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면서 대기업 집단의 참여율이 단기간에 늘어났다. 현재까지 기업가치제고계획(밸류업 공시)을 발표한 10대 그룹은 LG, 포스코 그룹, 현대차그룹 등으로 약 일주일 사이에 33% 가량이 참여한 셈이다.

대기업들의 참여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밸류업에 동참하는 상장사도 늘어났다. 지난달 21일 LG전자가 기업가치 제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밸류업 정책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이미지.

고 계획 안내 공시를 낸 이후로 밸류업 공시를 발표한 상장사는 총 11개사(자율공시 2곳·안내공시 9곳)다. 이는 총 참여율 1.11% 중 37.9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밸류업 공시가 본격화됐음에도 아직 상장사들의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이지만 대기업들이 움직임을 보이면서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는 상장사도 점차 늘어나는 모습이다.

거래소는 이달 중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밸류업 지수는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가치 증가가 기대되는 기업들을 추려서 지수를 구성하게 된다. 현재 지수 구성 종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상장사 100여곳의 수익성, 자본효율성, 주주환원성과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 참여율이 1%를 간신히 넘기

는 수준인 만큼 밸류업 공시 여부가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조창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여러 측면으로 모멘텀 약화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밸류업 지수 발표를 시작으로 다시 밸류업에 대한 관심도 회복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밸류업 지수 발표 관련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적극적인 주주환원 움직임을 보이거나 성장 가능성이 엿보이는 우량주들이 언급된다. 삼성증권에서는 주간 종목 추천을 통해 현대차를 언급하기도 했다. 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현대차는 9월 중 예정된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 패시브 자금 유입 수혜가 기대된다"며 "지수 출범과 더불어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 금융, 지주사 등 관련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대차는 10대 그룹 중 가장 먼저 밸류업 본 공시를 낸 모범생 기업이다. 지난달 28일 '2024 최고경영자(CEO) 인

베스터 데이'를 개최해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총주주환원율(TSR)을 35% 이상까지 끌어올리고, 주당 최소 배당금을 도입해 보통주 기준 1만원을 목표로 한다는 '통 큰 배당'을 발표했다. 더불어 3년간 자사주 매입 규모 총 4조원을 설정하는 등 적극적인 밸류업 전략을 제시하면서 기대 이상이라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다.

LG도 29일 4분기 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 공시한 뒤 총 5000억원 규모의 LG전자·LG화학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고 선언했다. P OSCO홀딩스, 포스코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포스코 계열사들도 4분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고 예고 공시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를 비롯해 내수주, 원화 강세 수혜주 등을 검토할 만하다"며 "밸류업 지수 발표는 관련주에 우호적이며 재료 소멸에 따른 변동성 곁이는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중위권 자산운용사, ETF 차별화 도모... 존재감 '쑥'

한투운용, 빅테크·반도체 상품 출시  
신한자산운용, 국내 최초 월배당 ETF  
리브랜딩 등으로 경쟁력 강화 집중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ETF 시장에서 중위권 자산 운용사들의 점유율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차별화된 운용 전략을 내세운 자산운용사들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어 시장 순위에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종가 기준 ETF 점유율 상위 5개사는 삼성자산운용(38.80%), 미래에셋자산운용(35.61%), KB자산운용(7.72%), 한국투자신탁운용(7.04%), 신한자산운용(3.01%) 순이다.

이러 키움투자자산운용(2.39%), 한

<자산운용사 ETF 시장 점유율>

(2024년 8월 28일 기준)

운용사	점유율	전년 대비 증감율
삼성자산운용	38.80%	-1.45%
미래에셋자산운용	35.61%	-1.28%
KB자산운용	7.72%	-0.31%
한국투자신탁운용	7.04%	2.16%
신한자산운용	3.01%	0.82%
키움자산운용	2.39%	0.16%
한화자산운용	2.30%	-0.14%
NH아모디자산운용	1.23%	-0.39%

/한국거래소

화자산운용(2.30%), NH아모디자산운용(1.23%) 등이 뒤를 이었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ETF 시장의 양강 체제가 여전히 견고하지만 이들의 점유율은 지난해 말 대비 각각 1.45%포인트, 1.28%포인트 감소했다. 이와 달리 중위권 운용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 신한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등 세 곳은 일제히 점유율을 높였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올해 시장 점유율을 2.16%포인트 끌어올리면서 KB자산운용과 점유율 격차를 1%포인트 이내(0.68%포인트)로 좁혔다.

신한자산운용도 지난해 말 대비 0.82%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의 경우 지난해 말 점유율 2.23%에서 0.16%포인트 상승한 2.39%를 기록하면서 한화자산운용을 앞서는 6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중위권 자산운용사들의 성장은 차별화된 운용 전략이 주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투운용은 산업 트렌드를 주도하는 빅테크, 반도체 등에 집중한 상품출시에 나서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컨설팅담당은 "ACE ETF는 빅테크,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미래 장기 성장 테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만든 상품"이라며 "시장 상황에 맞는 ETF를 퀄리티있는 콘텐츠에 담아 장기 분산 투자를 제안한 점이 주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CE ETF는 올 상반기 수익률 TOP10 내에 가장 많이 진입한 운용사가 되는 등 수익률 성과를 낸 점도 점유율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도 국내 유일 조선업 집중투자형 ETF인 'SOL 조선TOP3플러스'를 출시한 데 이어 투자자들의 월배당 니즈를 빠르게 파악해 국내 최초로 월배당 ETF를 내놓는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투자자들을 공략했다.

중위권 운용사들은 이색적인 테마의 ETF 등 타사와 차별화할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 데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리브랜딩에 나서는 등 앞으로도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중장기 성장 테마를 발굴하고, 최신 산업 트렌드를 반영해 장기적으로 꾸준하고 차별화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시에 투자 콘텐츠를 투자자에게 공급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 금투세 불확실성 등에 국내증시 이탈 지속

높은 반도체 비중·주도주 부재 영향도

코스피가 2600선에서 제자리걸음 하는 등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투자자들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증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데다 금융투자소득세 불확실성 등으로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들어 꾸준히 매수세를 지속해 온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순매도로 전환, 지난달 코스피에서 2조8682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월간 기준으로 외국인이 순매도를 기록한 것은 지난 5월(1조3307억원) 이후 3개월 만이다. 순매도 규모는 지난해 10월(2조9442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특히 외국인들은 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위주로 팔아치웠다. 8월 한 달간 삼성전자 2조880억원, SK하이닉스 9003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 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11.44%, 10.74% 급락했다.

조창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증시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을 강하게 시사했음에도 탄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라며 "반도체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에 대한 경계감이 더욱 큰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들도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떠돌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에탁금은 지난달 29일 기준 53조605억원으로, 주가가 폭락했던 지난달 5일 59조4876억원과 비교하면 약 한 달만에 6조4000억원 이상 급감

했다. 투자자에탁금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매도한 뒤 계좌에 남겨둔 돈으로 증시 대기성 자금이다. 통상 투자자예탁금 감소는 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나는 신호로 거론된다.

또 다른 대기성 자금인 매니마켓펀드(MMF) 잔고도 지난달 29일 기준 199조 6751억원으로 지난달 5일(208조3371억원) 대비 8조6000억원가량 줄었다. MMF는 만기가 짧은 국고채나 기업어음(CP) 등 단기물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불확실성 게다가 최근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 투자자들이 주식 포지션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관희 기자

## "美 주식 투자자, 절반 이상 수익 거둬"

카카오페이증권 '투자수익률 분석'

카카오페이증권에서 미국주식에 투자한 고객 절반 이상이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수익률은 거둔 투자자들은 '뮌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카카오페이증권에 따르면 미국 주식 투자수익률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가장 높은 수익을 낸 주식 종목은 페러데이 퓨처 인텔리전트 일렉트릭(F FIE)으로 수익률 980%를 기록했다. F FIE로 거둔 수익률은 980%로, 이는 투자금의 약 11배에 달하는 수익이다. FFIE에 투자한 이들은 52%가 익절해하기도 했다. FFIE는 지난 5월 당시 월가에서 '뮌 주식(유형성 주식)'으로 꼽혔던 종목이다.

다만 FFIE 당시 연고점(72달러)을 기준으로 주가가 92.38% 추락한 상태라, 일부 투자자는 큰 손해를 보기도 했다. 카카오페이증권 측은 "FFIE로 가장 큰 손실을 본 투자자의 수익률은 -99%로 손실 가능성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뮌 주식인 게임스탑의 경우 투자자의 48%가 익절해, 최고 수익률은 202%를 기록했지만 최대 손실률은 -73%에 이르렀다.

뮌주식이 아니더라도 미국주식에 투자한 고객 50% 이상이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지난 상반기 주가가 수익률이 150% 상승한 엔비디아의 경우 평균 6.6% 수익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투자자는 약 8배(698%)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허정원 기자 zelkova@